

河圖 · 洛書 · 先天八卦 · 後天八卦의 상호 유기적 관계 연구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Organic Relations among Hado, Laksǒ, a Priori Eight Trigrams, and a Posteriori Eight Trigrams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Hado (河圖) and Laksǒ (洛書) are the diagrams composed of the symbols of numbers from one to ten. And the eight-trigrams, P'al-gwoe divide into two types one is a priori eight-trigrams (先天八卦) or the Bok-Hui's eight trigrams (伏羲八卦); and the other is a posterior eight trigrams (後天八卦) or the King Mun's eight trigrams (文王八卦). Relating these two diagrams of Hado and Naksǒ with the two types of eight trigrams, they are said to be a term of Ha-Lak-Hui-Mun (HLHM). Each of HLHM represents the process of creating and changing of 'Heaven and Earth' and every being by the symbols of numbers and trigrams. In other words, each of HLHM symbolizes the origin and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as well as the birth of every life represented in the diagram of theosophy (神智學) or Kabbalah. HLHM are also regarded as the origin of I-ching or Book of Change. Hado produces Laksǒ through the principle of yin-yang (陰陽). Laksǒ produces a priori eight trigrams through the zigzag shapes which means Heaven and Earth are mutually responding. And a priori eight trigrams produce a posteriori eight trigrams through the triangle principle of connecting Heaven and Earth. In this process, Hado and a priori eight trigrams are respectively prior to Laksǒ and a posteriori eight trigrams. HLHM represent fractal shape resembling the symbol of five on the center of Hado, or Hado itself. In the dynamic process of HLHM, a diagram of Circle, Quadrangle, and Triangle (CQT) is produced as follows: Circle, the symbol of 'infinity' or Heaven, represents the origin of life or birth. Hado is the symbol of creation. Quadrangle, the symbol of Earth, represents that Laksǒ is scattered into four directions of front, back, left, and right. Quadrangle, which is immovable, represents materiality. Triangle, being described from the eight trigrams, means the movements of the process of 'mutual inclusion' of Circle and Quadrangle. Triangle also means the process of harmonizing human beings with natural law.

Key words : Hado (河圖), Laksǒ (洛書), eight-trigrams (八卦), a priori, a posteriori, I-ching, fractal, Circle, Quadrangle, Triangle

서 론

한동석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우주 변화의 원리와 한의학의 이론적 뼈대를 河圖 · 洛書 · 八卦에서 찾은 바 있다. 河圖 · 洛書 · 先天八卦 · 後天八卦(이하 河洛羲文)에 대한 중요성은 宋代 이후 누누이 언급되었지만 그 기전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망실되면서 최근에는 중국에서부터 하도 낙서의 가치를 단순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저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는 河圖 · 洛書 · 先天八卦 · 後天八卦의 유기적인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가 易學의 근간과 한의학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따라서 하락희문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가능성의 하나로 그 상호 생성 메카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bsoo@dju.ac.kr, · Tel : 042-280-2627

· 접수 : 2007/03/08 · 채택 : 2007/04/04

본 론

1. 數象과 卦象

河圖·洛書·先天伏羲八卦·後天文王八卦(이하 河洛羲文)는 비유하자면 신지학 [神智學, theosophy], 카발라 [Kabbalah] 등에서 나오는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 The tree of life] 또는 불교의 만다라 [曼荼(陀)羅, mandala]와 같이 우주의 기원과 구조 운행 및 생명의 근원 및 운행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동양인들은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또는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이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왔다. 이러한 우주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고대 동북아시아에서는 우주운동의 법칙과 그 본체가 열어주는 바의 象)에서 그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象數 원리는 오천년 전으로 추산되는 伏羲 때 물속에서 河圖가 나오므로써 그 기원을 이루게 된다. 복희는 이것을 전심으로 연구한 결과로써 드디어 그 그림 속에서 거기에 변화막축한 우주의 動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그는 무엇에 의하여 힌트를 얻었는가? 河圖는 象과 數로써 상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⁷⁾.

다시 말하면 象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 인식방법이 관념에 속한다 할지라도 자연수 자체는 분열과 종합하는 일정한 법칙에 의하는 것이므로 數列이나 數式的 변화에는 거짓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象은 사유와 인식에 의해서 관찰되지만 그 象 자체가 연출하는 바의 數의 흠여지고 모이는 현상은 이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象數原理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象에는 數象 이외에도 卦象이 있다. 한동석은 象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數象(河圖 洛書)을 먼저 말하고 卦象(八卦)을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⁸⁾. 數는 計算을 위하여 인간의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數 자체가 眞理이며 哲學이므로 數가 나타내는 모든 象은 虛象이 아니고 實象이다. 다시 말하면 萬物은 그의 본질대로 象이 나타나고 象에는 반드시 그 象의 내용인 바의 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河圖와 洛書는 數象에 해당하며, 河圖는 自然數가 統一하는 象을 표시한 것이고 洛書는 自然數가 發展하는 象을 나타내는 것이다⁹⁾. 先天八卦(伏羲八卦)와 後天八卦(文王八卦)는 卦象에 해당하며 그 淵源을 河洛에 두고 있다¹⁰⁾.

歷代의 많은 학자들이 河圖와 洛書로 八卦를 그리는 學說을 주장하여 河圖, 洛書, 先後天八卦를 배합시키려는 많은 시도가

行하여져 왔다. 圖書와 八卦의 結合은, 圖書의 數와 八卦의 象을 상호 배합시키는 작업으로 易學의 연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定說이 나오지 않고 있다¹¹⁾. 이에 필자가 河圖에서 洛書가, 다시 洛書에서 先天八卦가, 그리고 先天八卦에서 後天八卦로 변화되는 有機的인 과정을 인식하였기에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2. 河圖와 洛書

1) 河圖 洛書의 중요성

河圖는 河水(黃河)에서 나온 그림으로 역의 기원이 된다⁸⁾⁹⁾. 伏羲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머리는 용이고 몸은 말의 형상을 한 신비로운 짐승이 河水에 출현하였다고 하며, 그 등에 있는 55개의 점(머리의 가마같이 터럭이 휘돌아 치는 무늬)에서 천지창조와 만물생성의 이치를 깨달아 八卦를 그렸다고 전해진다¹⁰⁾. 洛書는 洛水(황하의 지류)에 나타난 神龜에서 유래한다. 夏禹氏가 舜의 명을 받아 9년동안 治水할 당시에 신령스런 거북이가 낙수에서 출현하였으며, 그 등에 나타난 45개점의 무늬에서 신묘한 이치를 깨달아 治水사업에 성공하였다고 전한다¹¹⁾. 후대에 圖書館이란 명칭이 이 河圖와 洛書에서 나오듯이 河洛은 동양에선 우주의 이치를 내포하는 대표적인 학문이다.

이에 반해, 김상섭은 朱熹가 河圖 洛書에 대해 장황한 이론을 갖다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와 낙서는 검은 점과 흰 점의 단순한 배열에 불과할 뿐 그것이 갖는 철학적 의의와 수학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여 河洛을 전설로 치부해버린다. 그는 또 후세 사람들은 하도 낙서를 마치 우주와 인생의 모든 원리를 다 갖고 있는 신비한 것으로 여기니, 이것은 시대를 내려오며 하도와 낙서에 억지 이론으로 신비스런 색채를 덧입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그림 자체에 우주의 원리나 인생의 원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¹²⁾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近來의 中國 文獻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적 지적은 河圖 洛書의 考證의 차원에서 언급된 것일 뿐, 실재 주자가 河圖와 洛書를 왜 『周易本義』 앞 부분에 넣은 理由와 그 理致에 대한 研究는 거의 없애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화담 서경덕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선비들은 河圖 洛書를 벽에 붙이고 面壁 3년을 많이 했다고 한다¹³⁾. 그들이 추구한 것은 考證의 관점보다는 圖書에 있는 理致를 窮究히 한 것이다. 理致가 서로 갈마들어 天地人의 理致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7) 윤창열, 醫易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002, p94.

8)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pp39-42, 서울, 대유학당, 1997.

9) 한국 학자 윤창열은 현재 많은 학자들은 河圖에 나타난 진리의 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여 圖書의 내용을 평가절하하거나 격하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宇宙의 내재적 질서를 집약된 數로써 표현하고 있는 河圖는 그 지고한 가치를 조금도 잃지 않고 있으며 그 간명함에 반비례하여 우주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했다.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5, 3(2):103-124.

10)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pp39-42.

11)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pp43-45.

12) 김상섭 해설, 주희, 역학계몽, p283, 서울, 예문서원, 1996.

13) 서경덕, 황광옥 역주, 화답집. pp56-58, 서울, 심산문화, 2004.

1)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은 볼 수도 있는 모습이 象이다. 이것은 無形이 有形으로 전환하는 중간과정에서 나타난다. (筆者註)

2) 하도의 출현에 관하여 최근 중국의 고증학자들은 송대(宋代) 진단(陳搏)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진단을 통해 소강질 주희에 이르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심경호 옮김, 廖名春 외 2인, pp369-417,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3) 김상섭 해설, 朱熹, 易學啓蒙, pp35-85, 서울, 예문서원, 1996.

4)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pp47-48, 서울, 행림출판, 1990.

5)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pp135-145.

6)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p136.

7)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p141.

2) 河圖와 洛書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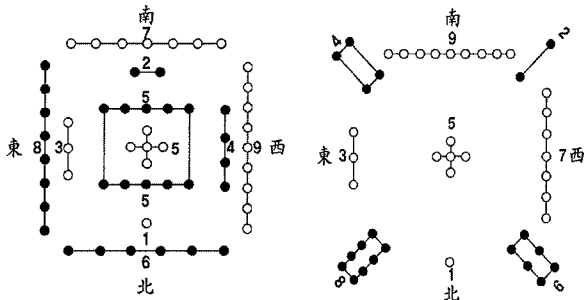


그림 1. 河圖

그림 2. 洛書

河圖와 洛書는 自然數로 이루어져 있다. 河圖는 生數와 成數로 구성되어 있고, 洛書는 奇數와 偶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特徵이다. 河圖는 1,2,3,4,5의 生數로 6,7,8,9,10의 成數를 거느려 같은 방향에 처하며, 10數를 들어서 사람에게 보여 그 일정함[常]을 말하니 이는 數의 體이다. 洛書는 1,3,5,7,9의 奇數로 2,4,6,8의 偶數를 거느려 각각 그 있을 곳에 있으며, 대개 陽에 주로 하여 陰을 거느리고 그 변화[變]를 일으키니 이는 數의 用이다¹⁴⁾.

河圖 洛書에는 五行이 배속되는데, 대표적으로 河圖는 相生을 爲主로 회전하고 洛書는 相克을 위주로 반대로 회전한다. 그러나 반드시 河圖 相生, 洛書 相克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待對에서는 河圖는 金木 水火로 相克이 되고, 洛書는 木火 金水로 相生이 된다. 河圖의 五行은 左旋으로는 相生이고 待對는 相克이니 이것은 陽이고 圓이기 때문이요, 洛書의 五行은 右旋으로는 相克이 되고 待對는 相生이 되니 이것은 陰이고 方이 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河洛 構造의 차이는 河圖 五行은 生數와 成數가 짝으로 같이 있었는데, 洛書에서는 8方으로 흩어지면서 각각 독립하게 되는 것과 金과 火가 金火交易이 된다는 사실이다.

3) 河圖 生 洛書

河圖 洛書에서 金火交易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河圖의 어떠한 理由 때문에 火와 金의 위치가 바뀐 것일까. 이 문제를 풀어야만 河圖生洛書로 진행할 것이다.

(1) 負陰而抱陽과 金火交易

老子는 《道德經》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라 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법칙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하나(One)를 一元의 氣(전체)로 보고 2(Two)는 陰氣와 陽氣로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陰氣와 陽氣에서 和氣가 생기어 三氣의 和습으로 말미암아 萬物이 생성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萬物은 陰을 등지고 陽을 쌓고 있는 것이며 이 때 화합 에너지는 沖氣가 된다. 따라서 3은 음양에 다시 沖氣를 가한 것으로 만물을 창조한다고 하였다¹⁶⁾. 여기서 負陰而抱陽이라는 의미는 陽은 發散하므로 陰의 收斂力으로 포장을 해야 하고, 陰은 陽의 發散力을 감싸고 있어야 陰陽이 서

로 어울려 地天泰의 象으로 오래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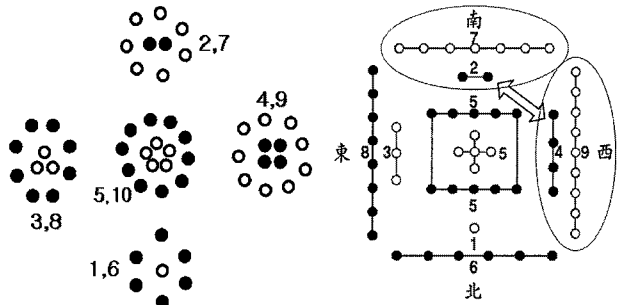


그림 3. 河圖의 陰陽配置

그림 4. 河圖의 金火交易

그림 3, 4를 보면 河圖에서 一六 水, 三八 木, 五土는 모두 負陰而抱陽이 되어 있다. 生數인 陽數가 내부에 있고, 成數인 陰數가 외부에 있어서 상호 교류를 하기에 만물 형성에 근원이 된다. 그러나 二七 火와 四九 金은 그림에서와 같이 生數 2, 4인 陰數가 내부에서 수렴하고 成數 7, 9인 陽數가 외부에서 發散하여 天地否의 형상이므로 火와 金은 현상대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주 발생과 생명 시원의 이치인 河圖는 태초부터 火 金의 矛盾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다. 이는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완벽한 분류와 학문적 체계는 없다는 다소 카오스적 관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水木土는 온전할 수 있지만 金은 陰陽이 분열되어서 너무 딱딱해지고[硬化], 火도 陰陽이 분열되어서 너무 뜨거워져[熱化] 金과 火는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 金을 따뜻한 南方에 놓아 녹이고, 火를 서늘한 西方에 놓아 식히는 理致가 필요해진다(그림 4). 이런 原理를 金一夫先生은 正易 十五一言의 金火二頌에서 氣東北而固守하고 理西南而交通¹⁷⁾이라고 하였고 十一歸體詩에서는 火入金鄉金入火 金入火鄉火入金¹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河圖는 洛書로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河圖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金火가 交易되고 탄생시 陰陽이 짝으로 있던 것들이 변화를 하고자 각각 분리하여 洛書를 만든다.

(2) 河圖構造로 手足 經絡의 理解

앞의 河圖構造를 보면 변화하지 않고 負陰而抱陽이 되는 水(1,6) 木(3,8) 土(5,10)는 한의학 藏府經絡 配屬에선 腎膀胱, 肝膽, 脾胃에 해당한다. 즉 이상은 모두 足經이다. 반면에 火(2,7) 金(4,9)에 해당하는 心小腸, 心包三焦, 肺大腸은 모두 手經에 해당한다. 따라서 12경맥의 手足經 區分의 理由를 河圖의 陰陽論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 부분을 좀 더 고찰해보면 天氣左旋而下降하고 地氣右旋而上升하는 이치로 足經의 경락 흐름방향과 手經의 경락 흐름방향은 相互 逆順으로 회전함을 예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3. 先天八卦와 後天八卦

1) 先後天 八卦의 意味

八卦는 天地人三才의 法道로 三劃을 그어서 만든다¹⁹⁾. 임의

14) 김상섭 해설, 주희, 역학계몽, p65.

15) 崔碩基, 河洛演義, p191, 서울, 여강출판사, 1993.

16) 김경탁, 新譯 老子, p207, 서울, 현암신서, 1978.

17) 李正浩, 第三의 易學, p2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18) 李正浩, 上揭書, p60.

의 공간을 xyz축으로 구획을 나눈다면 8공간으로 구성이 된다. 즉 예를 들면, 두부를 가로, 세로, 횡단면으로 절단하면 8조각이 나오는 것이다. 이 의미는 8이란 삼차원 공간에서 표현되는 형이 하학적 표현의 최소단위 숫자라는 뜻이 있다. 이것이八卦에 一乾天 二兌澤 등 표현으로 하늘, 연못, 불, 우레 등의 구체적인物象이 붙어있는理由이다. 四象의 단계에서는形而上學的이기에物象이 붙어있지 않다.八卦에 와서 구체적인物形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팔괘형성에 관한 이론은 세가지의 학설이 있다. 즉 太極兩儀說(태극양음설), 河圖說, 그리고 洛書說이 그것이다²⁰⁾. 繫辭傳에서八卦가 그려지는 과정에 대하여 세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황하에서 河圖가 나오고 낙수에서 洛書가 나오니 성인이 이것을 본뻤다 한 것으로, 후세의 학자들은 伏羲가 하도를 본떠 팔괘를 지었다고 하였다. 둘째는八卦는 伏羲가 天地萬物의 形象을 살피고 몸과 사물에서 취하여 팔괘를 그렸다고 한 것이다. 셋째는 太極에서 兩儀, 四象의 순서를 거쳐서八卦가 生成되었다고 한 것이다. 후세의 학자들은 복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팔괘를 그렸다고 인식하였다²¹⁾. 여기서 세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것으로 복희가 天垂象하여 河圖를 보고 萬物의 이치를 깨달아 陰陽, 四象,八卦로 '三變成道'하여八卦를 만들게 된 것이다.

주자는 河圖와 洛書를 天地自然의 易, 先天圖를 복희의 易, 後天圖를 문왕의 易, 卦變說을 孔子의 易으로 간주하여 이들은 易의 발생적 측면에서 유기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²⁾. 주자는 太極陰陽說이 河洛의 圖上에 투영된 것으로 보아서, 그는 河洛을 근거로 형성된 卦의 논리로 세계의 질서를 보편적으로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卦에는 先天圖와 後天圖가 있는데 文王의 後天八卦圖는 伏羲의 先天八卦圖를 改易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³⁾. 先天圖는 易의 본원에 해당되며, 後天圖는 易의 用으로서 이들은 易의 體用論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소강절은 복희팔괘는 天道를, 문왕팔괘는 地道를 상징한다고 말하여 天道인 先天八卦圖를 근거로 後天八卦圖가 생성된 것으로 이해한다²⁴⁾.

先天八卦는 子午軸에 乾坤이 位하였고, 後天八卦는 坎離가 位하였다. 이는 先天에서는 天地가 기준이 되지만, 後天에서는 水火가 기준으로 先天에 비하여 力動的임을 알 수 있다.

2) 先天八卦 生 後天八卦

先天八卦에서 後天八卦로 변화는 과정을 주역경문을 통해 잘 설명한 글은 也山의 九五變圖說²⁵⁾이 유명하다. 乾卦 文言傳의 九五爻辭에서 나온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와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를 풀이하여 선후천

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본 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道선국사의 寅午戌 火局과 申子辰 水局의 三合으로 풀이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道선²⁶⁾은 先後天의 變化를 설명하며 河洛義文의 運行 變化하는 理致가 生旺葬 三合의 理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의 스승 一行先師는 天地는 三合이 아니면 무너져버리고, 鬼神도 三合이 아니면 도망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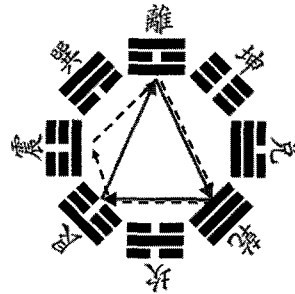


그림 5. 後天變化圖-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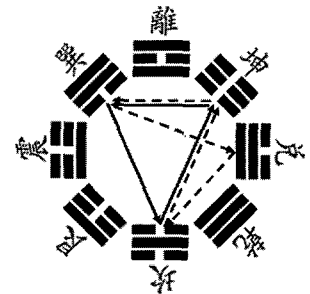


그림 6. 後天變化圖-2

先天이 後天으로 되는 理致는 다름이 아니고, 乾이 午의 위치에 있다가 戌의 위치로 돌아오고, 艮이 본래 戌의 자리에 위치하였으나 寅의 자리로 나아가며, 離는 본래 卯의 위치이나 午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그림 5). 坤은 본래 子의 위치였으나 申의 자리로 나아가며, 巽은 본래 申의 자리이나 辰의 위치로 나아가고, 坎은 본래 酉의 자리이나 子의 위치로 가며, 辰은 본래 寅이나 離의 옛 자리로 가고, 兌는 辰의 위치였으나 坎의 위치로 가니(그림 6), 坎과 離의 자리에는 子午의 氣가 있게 된다.

乾良震離는 陽이요, 坤巽坎兌는 陰이라, 乾屬卦는 離가 아니면 成立하지 못하고, 坤屬卦는 坎이 아니면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²⁷⁾ 하였다. 先天八卦에선 坎과 離를 中男 中女로 인식하여 坎을 乾에, 離를 坤에 배속시켰으나, 後天八卦에서는 坎과 離를 水火로 보아 坎을 坤에 離를 乾에 배속시킨다.

4. 河圖·洛書와 先天·後天八卦 연결

1) 河圖 洛書 先後天八卦의 先後天 논란

일반적으로 河圖는 常, 洛書는 變으로 또는 河圖 體, 洛書 用으로 서술되며, 伏羲八卦와 文王八卦도 先天과 後天, 또는 體와 用²⁸⁾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후대에 河圖는 先天八卦와 配가 되고 洛書는 後天八卦와 配가 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역대문헌을 참조하여 보면 하도낙서와 선후천팔괘의 배합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배합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도와 선천팔괘, 낙서와 후천팔괘 배합뿐만 아니라 하도와 후천팔괘, 또는 낙서와 선천팔괘 배합을 제시하며 다양한 차종관계를 설명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定說이 나오지 않고 있다²⁹⁾.

또 최근 일부 서적에서 하도와 선천팔괘를 동일시하고, 낙서

19) 김석진, 대산 주역강해(上經), pp29-30.

20) 烏恩溥, 古代中國의 世界圖式. p14, 吉林, 文史出版社, 1989.

21) 김상섭 해설, 주희. 역학계몽, pp92-94.

22) 백은기, 주자역학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30.

23) 『易學啓蒙』 「원괘획제이」의 文王八卦에 대한 朱子註, "此言文王改易伏羲卦圖之義也"

24) 양재락, 주자의 역학사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p109-110.

25) 김석진, 上揭書, pp85-87.

26) 도선국사 저, 정관도 현토주해, 九天玄妙秘書 內外經, pp27-33, 서울, 지선당, 1996.

27) 도선국사 저, 上揭書, p33.

28)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p183, 서울, 동방문화, 1989.

29) 윤창열, 의역학. pp92-130.

와 후천팔괘를 동일시하여 하도·낙서와 선후천팔괘의 구분이 없이 설명을 해서 혼동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³⁰⁾. 분명히 하도·낙서는 數象이고 先天·後天八卦는 卦象으로 河洛과 八卦는 각각 독립적이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장에서는 河洛과 先後天八卦의 연결고리를 洛書에서 先天八卦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洛書 生 先天八卦

서양보다 먼저 地動說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조선 역학자 김석문³¹⁾은 주역에 관한 圖書를 저작했는데, 그 중 제7도 '數卦少成圖'는 八卦의 형성을 그린 것이다(그림 7)³²⁾. 이는 건곤괘로부터 小成卦가 이루어짐을 그린 것인데, '洛書'의 그림을 그려 八卦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림 7의 상단에 八卦를 乾坤卦로 左右로 나누고 여기에 三男三女の 六子卦를 配屬한 것이 보이는데, 그 배속은 乾卦(☰)는 父로서 長男(震☳) 中男(坎☵) 少男(艮☶)에屬하고, 坤卦(☷)는 母로서 長女(巽☴) 中女(離☲) 少女(兌☱)에屬한다.

洛書의 數는 상하좌우 어디서 더하여도 15가 되는 九宮의 魔方陣에 해당한다. 그림 8을 보면 1,2,3,4는 아래에서 위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형상이고, 9,8,7,6은 위에서 아래로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형상이다. 이는 天地의 交合을 설명하는 것으로 交媾時 직선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같은 지그재그 운동을 하게 됨을 보여준다. 地氣는 아래에서 1,2,3,4의 順으로 상승하여 天과 만나고, 天氣는 9,8,7,6의 逆順으로 하강하여 地와 만나게 된다(그림 8).

이러한 洛書의 數에 天은 父로 地는 母로 배속을 하여 그 순서대로 1,2,3,4는 母, 長女 中女 少女를 배속하고 9,8,7,6은 父, 長男, 中男, 少男을 배속하면 그대로 先天八卦圖가 나온다. 따라서 簡易하게 洛書에서 先天八卦가 도출됨을 볼 수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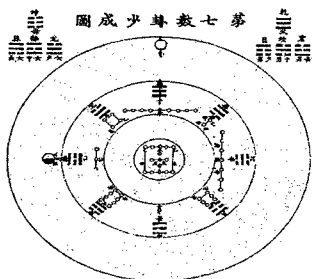


그림 7. 金錫文의 數卦少成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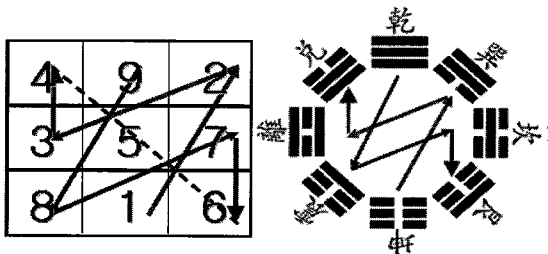


그림 8. 洛書生先天八卦圖

3) 有機體의 觀點의 河洛儀文

伏羲八卦는 伏羲氏가 天下를 다스릴 때 우러러서는 하늘에서 形象을 관찰하였고, 굽어서는 땅에서 法則을 관찰하였으면, 새와 짐승의 모양과 땅의 알맞음을 살펴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여 비로소 八卦를 지어 神明의 德에 動하고 만물의 상태를 분류하였는데³³⁾, 이는 河圖를 보고 만든 것³⁴⁾이며, 先天八卦라고도 한다³⁵⁾. 文王八卦는 後天八卦로 後天의 이치가 들어 있는 洛書의 九宮數를 卦位로 삼으니, 後天은 相克하는 원리가 기본이 되는 까닭이다³⁶⁾. 이와 같이 先天理致로 河圖와 伏羲八卦를 배치하고, 後天理致로 洛書와 文王八卦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筆者는 河圖의 矛盾으로 洛書가 발생하고 洛書의 형상에서 고스라니 先天八卦가 탄생하며, 다시 先天八卦는 三合의 理論으로 後天八卦를 발생시킨다고 앞장에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러면 앞 문장의 先天 河圖·伏羲八卦와 後天 洛書·文王八卦 配屬論과 지금의 河圖生洛書, 洛書生伏羲八卦, 伏羲八卦生文王八卦論은 서로 모순이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河圖와 洛書, 先天八卦와 後天八卦의 구조를 유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河圖의 生成과 運行 시스템이 다르듯이 河洛儀文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야만이 위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창발적인 역학적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도와 낙서의 의미하는 바를 窮究하고 선천팔괘와 후천팔괘 적용변화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생성과 운행, 그리고 자연 사물의 적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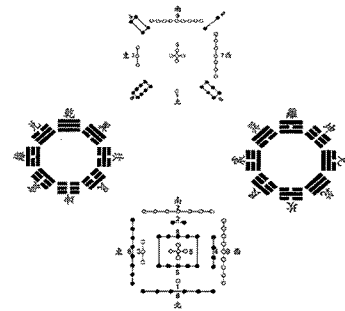


그림 9. 河洛儀文의 構造圖

동양학과 한의학에서 사물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板은 四象·五行圖³⁷⁾이다. 春夏秋冬, 東西南北을 각각 前後左右에 배속하고, 中心을 토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河洛儀文도 역시 4개의 圖이므로 四象의 관점에서 배치를 할 수 있다. 水에 해당하는 것을 河圖로, 火에 해당하는 것을 洛書로, 木에 해당하는 것을 伏羲八卦로, 金에 해당하는 것을 文王八卦로 배속을 하였다(그림 9). 그 理由를 설명하자면, 河圖의 발생이 1水 2火 3木 4金의 順으로

30) 朱喜, 김상섭 해설, 易學啓蒙, p89.

31) 李正來, 醫易同源(上), p103, 서울, 광림공사학술도서, 1993.

32) 이용태 최병태 최영현 백근기, 정기신혈과의 형상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5):1181-1190.

36)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경), p50.

37) 四象·五行圖는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圖板인데, 이는 河圖에 바탕을 두고 있다(筆者註).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운행은 水木火金로 左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河洛犧文 構造圖에서도 水木에 해당되는 河圖·伏羲八卦가 先天에, 火金에 해당되는 洛書·文王八卦가 後天에 소속된다. 이 이론을 추구하고 보면 春夏와 秋冬의 사이에 長夏가 있듯이 河洛犧文외에 土개념의 圖가 추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필자의 견해로는 數와 卦를 동시에 사용한 正易이 해당되리라 예측하며 그 위치는 南西方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4) 프랙탈 관점의 河洛犧文

프랙탈[fractal]이란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과 소수(小數)차원을 특징으로 갖는 형상을 일컫는다. '프랙탈'이란 이름은 1975년 B.B.만델브로트에 의해 지어졌으나, 이러한 형상들에 관한 추상적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칸토어집합, 코흐눈송이, 시어핀스키삼각형 등이 그 예이다. 김상일은 유한한 길이나 공간을 무한하게 나누는 방법을 통해 무한과 유한이 불가분리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랙탈'이며 한의학의 세계는 이러한 논리 없이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³⁸⁾. 그는 다시 칸토어 집합 개념인 전체와 부분, 부류와 요원의 개념을 사용하여 河圖의 中宮 土를 전체·부류로 인식하고 나머지 水木火金은 부분·요원으로 파악하였다.

河圖의 그림을 살펴보면, 中宮 五의 모양과 河圖 전체의 모양이 닮아있다. 中宮 五의 모양은 앞서 설명한 四象·五行圖의 모양이며, 나아가 河洛犧文의 有機的인 構造圖 역시 河圖象을 닮아있어 프랙탈적임을 보여준다(그림 10). 이런 그림의 의미는 河圖 中心에 해당하는 中宮 五皇極에서 만물이 생성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五皇極이 부분과 전체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의 생성도 그 始原은 中宮에 있고 形而下學으로 드러날 때 一水부터 시작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河洛犧文 構造圖에서 河洛犧文의 시작은 하도(一六水 자리, 아래)에서 시작함을 다시 제시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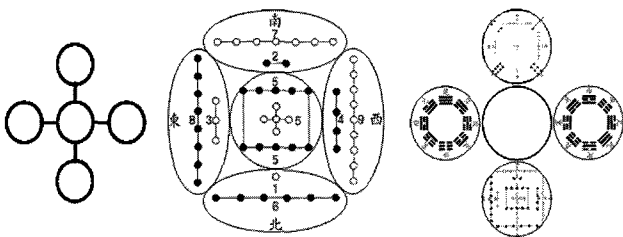


그림 10. 中宮 五, 河圖, 河洛犧文의 프랙탈적 모습

5. 河洛犧文의 응용

1) 河洛犧文 도형의 의미

河洛犧文 각각에 해당하는 도형의 이미지가 있다. 河圖는 동글어서 하늘의 象이 되고 洛書는 모가나서 땅의 象이 된다³⁹⁾. 河圖는 四正方に 生數와 成數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서 實하고 四間方은 비어서 虛하므로 圓形을 표시한다. 洛書는 四正方に 奇數, 四間方엔 偶數가 있어서 八方이 모두 實하여 方形을 이룬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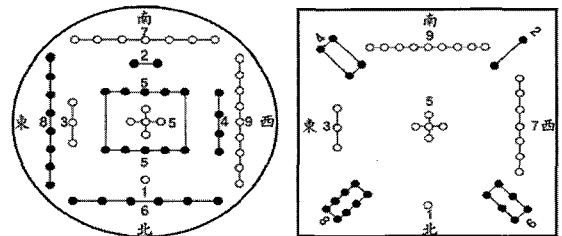


그림 11. 河圖 洛書의 圓方

先天八卦圖에서 乾坤이 上下의 위치에 있음은 經이요, 六子가 左右에서 서로 交하는 형상은 緯이다. 先天八卦圖는 對待의 體를 이루어 易의 본원인 造化의 妙를 표현하고 있다⁴⁰⁾. 八卦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對待性을 天地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이 先天八卦의 가장 큰 특징이다. 伏羲八卦方位圖에서 四正方에는 천문적인 현상인 天地가 定位하고 日月이 運行하는 象이 나타나 있고, 四間方에는 지리적인 표현인 山澤이 交氣하며 雷風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⁴¹⁾. 따라서 伏羲八卦는 天地의 氣가 交合하여 생기는 人의 象인 三角⁴²⁾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伏羲八卦循次圖는 밑으로부터 太極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는 象으로 逆三角形으로 되어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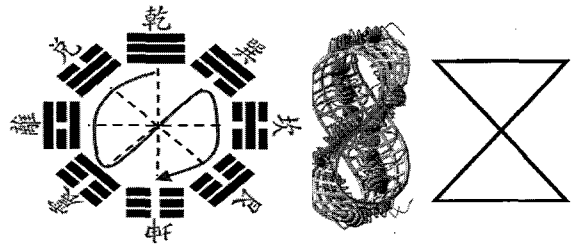


그림 12. 伏羲八卦의 삼각형

陰陽四象이 八卦를 낳는 순으로 보면 乾兌離震이 1,2,3,4에, 巽坎艮坤이 5,6,7,8에 해당하여 太極象을 이루고 있다. 이는 피비우스 피⁴⁴⁾와 유사하며 에셔의 상징적 그림을 생각나게 한다(그림 12). 또한, 卦圖上에서 對待性을 갖고 이으면 三角形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나오므로 伏羲八卦의 도형은 삼각형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추상을 해야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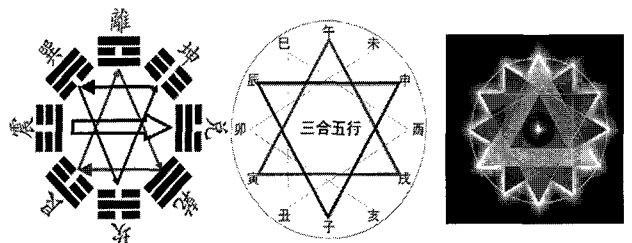


그림 13. 文王八卦의 力動的 삼각형

38)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해의, pp206, 281-283, 서울, 지식산업사, 2005.
39) 崔頌基, 河洛演義, p176, 서울, 여강출판사, 1993.
“河圖者 圓而爲天之象也 洛書者 方而爲地之象也”

40) 김익수, 주자의 역사사상연구2, 철학논총 제5집, 영남철학회, p81.
41)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179, 서울, 동방문화, 1990.
42) 金秀吉, 尹相喆. 周易入門, p18, 서울, 대우학당, 1997.
43) 이용태 최병태 최영현 백근기. 정기신철과의 형상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5) :1181-1190.
44) 김상일, 易과 탈현대의 논리, pp424-430, 서울, 지식산업사, 2006.

後天文王八卦는 도선의 說을 따라 삼승 원리로 궤도를 보면, 寅午戌 火局과 申子辰 水局이 상호 교류하는 형상이며, 두 삼각형이 틀니바퀴와 같이 마주보면서 회전하는 모습이다. 태양이 東에서 西로 진행하듯이 회전의 방향은 중심축(東西軸)을 기준으로 東에서 西로 움직이며 그 결과 남방과 북방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개의 삼각형이 마주보면서 회전하는 역동적인 모습이며, 히란야 파워 등에서 나오는 문양과 그 모습이 유사하다(그림 13). 이와 같이 河洛犧文은 圓方角의 도형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河圖는 圓을 상징하고, 洛書는 方을 상징한다. 伏羲·文王八卦는 모두 角을 상징하는데, 先天八卦는 대칭성이 강조된 靜의인 角이라면, 後天八卦는 회전 개념이 강조된 動的인 角이다.

2) 河洛犧文과 天地人 三才論

圓方角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환단고기(桓檀古記)』 「삼신오제본기 三神五帝本紀」⁴⁵⁾에 “하늘에 제사 지낼때는 둥근 단을 쌓았고, 땅에 제사지낼때는 모난 언덕에서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각목(角木)을 썼다.”라고 했다. 圓은 하늘을, 方은 땅을, 角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天人地 三才 사상을 뜻한다. 『孟子』에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 하여 하늘이 주는 좋은 때(시간)는 지리적 공간적 이로운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운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天人地 三才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 즉 하늘은 단지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변수개념으로 하늘의 무한한 가능성, 신의 의미, 정신, 시간성, 범주 등을 뜻한다. 땅은 단지 땅 자체의 의미를 넘어 공간적인 요소,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드러남 등을 뜻한다. 사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시간과 공간속에서 작용하는 작용력을 뜻한다. 이 후 『삼일신고』⁴⁶⁾에서도 性을 원(○) 命을 방(□) 精을 각(삼각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방각은 삼재 사상을 설명하는 공간적인 도형이며, 이는 하늘의 이미지를 원이, 땅의 이미지를 방이, 사람의 이미지를 각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는 圓圖로 天의 理致를 위주로 밝히고 있고, 낙서는 方圖로 地의 理致를 밝히고 있다. 先天後天八卦는 角法을 사용하여 人의 理致를 밝히고 있다.

文王八卦方位圖는 內情이므로 시간적인 春夏秋冬, 四時, 寒暑의 성질로 배치된 것이나 伏羲八卦는 外象으로 되었기 때문에 乾上, 坤下라는 공간적 위치로 배치된 것이다. 그래서 文王八卦는 남방에 離卦가 있고, 북방에는 坎卦가 있는 것이다.⁴⁷⁾ 또 동방에 震卦는 春節이 되면 만물의 生氣가 발동하여 다 싹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다. 서방에 兌卦는 秋節에 만물이 그 生氣를 吸收 集結하는 뜻으로 서방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⁴⁸⁾. 따라서 伏羲八卦는 공간의 대칭성을 위주로 하는 人法의 구조와 뼈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文王八卦는 시간 운동을 위주로 人法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河圖는 우주와 하늘의 원리를 설명[天法]하고, 다시 낙서는 땅으로 내려와 대지의 원리[地法]를 설명한다. 河洛의 數象이 있는 연후에 三劃⁴⁹⁾을 그어 八卦의 괘상이 나타나 人과 事

物에 대한 이치[人法]를 표명하는데, 伏羲八卦는 事物의 공간적 구조를 표현하고, 文王八卦는 공간이 형성된 후의 運行의 법칙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면, 伏羲八卦는 人中 先天圖 또는 人中天이며, 文王八卦는 人中 後天圖 또는 人中地가 될 것이다⁵⁰⁾.

최근 신과학과 기존의 동양학을 河洛犧文에서 원리를 찾는다면, 河圖는 우주창조설이기에 빅뱅이론과 천문학의 이치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洛書는 번개원리로 땅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하기에 지구자기장의 이치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先天八卦는 공간 구조적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풍수지리나 관상학의 기본 원리가 되며, 後天八卦는 구조형성이후의 運行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물의 시간적 변화에 많이 적용된다. 그리고 河圖에서 발전하여 洛書로, 洛書에서 발전하여 先天八卦로 다시 後天八卦로 발전하였기에, 後天八卦에는 河圖, 洛書, 先天八卦의 이치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후대에 내려오면서 모든 변화를 측정하는 기준을 후천팔괘를 위주로 설명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河洛犧文의 기본적 圖象은 河圖이기에 이 모든 변화상은 하도의 원리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도는 모든 圖書易의 원조라 하겠다.

3) 河洛犧文 관점의 形象醫學 精神氣血

한의학계 내에 형상의학을 위주로 하는 학파가 있다. 이곳에서는 얼굴의 형태를 위주로 精神氣血 4個科로 구분하여 인체를 바라본다.

精科는 얼굴이 둥근 사람으로 河圖로 형성되었고, 氣科는 네모이거나 각진 사람으로 洛書로 형성되었다. 神科는 역삼각형을 위주로 하며 伏羲八卦로 형성되었으며, 血科는 밑이 넓직한 계란형 또는 길면서 턱부위가 발달한 유형으로 文王八卦로 형성되었다⁵¹⁾고 한다. 河洛犧文의 공간적 도형을 이용하여 실제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예이다.

河洛犧文의 발전상과 같이, 精은 氣로 化하고, 다시 精氣가 交合되어 神이 생긴다(神者 精氣之化成也)⁵²⁾고 하였다. 그리고 血은 精氣 神이 交合되어 생기는 것인데, 이는 文王八卦가 河圖, 洛書, 伏羲八卦의 交合으로 발생한다는 논리와 일치하고 있다⁵³⁾. 따라서 精에서 발전하여 氣로, 氣에서 발전하여 神으로 다시 神에서 발전하여 血로 化한다. 血科에 해당하는 계란형 얼굴이 가장 발달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치료도 또한 복잡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하라희문의 도형에서 보았듯이 易理의으로 해설해 보면, 精科는 河圖의 圓圖를 의미하여 精虛가 되기 쉽고, 氣科는 洛書의 方圖를 의미하여 氣滯가 되기 쉽다. 神科는 伏羲八卦의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설명하므로 구조적으로 뾰족한 감이 있는 것이며, 血科는 文王八卦의 두 삼각형이 회전하는 象으로 뾰족했던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둥글어져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나 특징은 달걀형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취하게 된다⁵⁴⁾.

49) 1은 하늘이라면, 2는 땅, 3은 사람에게 해당한다(筆者註).

50) 양재학, 주자의 역학사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p109-110참조.

51) 박재형, 형상의학강의록2, p3, 복사본.

52) 許濂, 東醫寶鑑, p95, 서울, 남산당, 1990.

53) 이용태 최병태 최영현 백근기, 정기신혈과의 형상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5):1181-1190.

54)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易理의인 이론으로 추산한 것이다. 많은 분들의 研究 此正이 필요하다(筆者註).

45) 계연수 지음, 고동영 옮김, 환단고기, pp114-124, 서울, 한뿌리, 2006.

46) 최동환 해설, 삼일신고, pp502-505, 서울, 지혜의 나무, 2005.

47)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183.

48)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184.

결 론

數象의 河圖 洛書와 卦象인 伏羲八卦 文王八卦는 宇宙의 原理와 生命의 理致가 내재되어 있는 그림이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河圖에서 負陰而抱陽이 안된 金과 火가 金火交易을 발생시켜 자연적으로 洛書로 발전하고, 洛書는 地에서 天으로 天에서 地로 상호 지그재그 내려오는 번개象을 따라서 先天八卦가 나오며, 先天八卦는 다시 三合의 原理를 통하여 後天八卦로 발전한다. 河洛羲文 生成의 作用이 이와 같아서 河圖 \subset 洛書 \subset 先天八卦 \subset 文王八卦로 포함·발전된다. 運行的 作用으로 보면, 河圖와 先天八卦는 先天의 理論을 제시하고 洛書와 後天八卦는 後天의 이론을 제시한다. 河洛羲文의 유기체적인 관점은 '중궁 5토 \rightarrow 하도 \rightarrow 河洛羲文'의 프랙탈적 모습을 보여준다. 河洛羲文에서 원방각의 도형을 도출하여 天地人 三才 사상을 살펴보면 河圖는 天, 洛書는 地의 法則을 내포하고 先天八卦와 後天八卦는 各各 人의 空間의 법칙과 時間·運行的 법칙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圖形의 變化는 형상의학의 精神氣血科의 원리로 발전하여 精 \subset 氣 \subset 神 \subset 血의 포함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참고문헌

1. 심경호 옮김, 廖名春 의 2인.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2. 김상섭 해설. 朱熹,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1996.
3. 한동서.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0.

4. 윤창열. 醫易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002.
5.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3(2):103-124, 1995.
6. 김석진. 대산주역강해(상). 서울, 대유학당, 1997.
7. 서경덕, 황광옥 역주. 화담집. 서울, 심산문화, 2004.
8.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3.
9. 김경탁. 新譯 老子. 서울, 현암신서, 1978.
10. 李正浩. 第三의 易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11. 烏恩溥. 古代中國의 世界圖式. 吉林, 文史出版社, 1989.
12. 백은기. 주지역학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3. 양재화. 주자의 역학사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4. 도선국사 저. 정관도 현토주해, 九天玄妙秘書 內外經. 서울, 지선당, 1996.
15.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서울, 동방문화, 1989.
16. 강진원. 알기쉬운 역의 원리. 서울, 정신세계사, 2006.
17. 신채호.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6.
18. 한국사상사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문서원, 2003.
19. 李正來. 醫易同源(上), 광림공사학술도서, 1993.
20. 이용태, 최병태, 최영현, 백근기. 정기신혈과의 형상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5):1181-1190, 2005.
21.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해의. 서울, 지식산업사, 2005.
22. 김상일. 易과 탈현대의 논리. 서울, 지식산업사, 2006.
23. 김익수. 주자의 역학사상연구2. 철학논총 제5집, 영남철학회.
24. 金秀吉, 尹相喆. 周易入門. 서울, 대유학당, 1997.
25. 계연수 지음, 고동영 옮김. 환단고기. 서울, 한뿌리, 2006.
26. 최동환 해설. 삼일신고. 서울, 지혜의 나무, 2005.
27. 박재형. 형상의학강의록2. 복사본.
2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0.